

# 초남이성지 · 바우배기 '세계 평화의 장으로'

완주군, '초남이성지 2차 학술세미나' 열고 각계 전문가 주제발표 · 토론 나서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굴로 각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완주군 초남이성지와 바우배기를 종교 차원의 역사적 장소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장으로 조성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완주군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천주교 전주교구 호남교회사연구소는 지난 3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초남이성지 2차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각계 전문가 주제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에 나섰다.

남해경 전북대 교수는 이날 '초남이성지의 정비 및 활용계획' 주제발표에서 "초남이성지는 북자 유형점의 생가터이자 복음을 전파하던 곳이며, 약 1km 가량 떨어진 바우배기는 지난해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 윤지현의 유해가 확인된 곳"이라며 "이곳의 역사적 · 종교적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새로운 종교적, 문화재적 가치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한국 천주교사에 큰 획을 그은 초남이성지에 '성지 역사관'을 조성하고 관광자원과 당시 사회의 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교지를 중심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광장을 조성하고 주위에 성직자들의 수도를 위한 공간과 피정센터, 라키비움, 일반인이나 신도들을 위한 치유공간, 믿음살이 체험센터, 체험공간, 순례길, 종교정원(환경생태 관련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시했다.

그는 "초남이성지는 천주교의 역사문화 자원이기도 하지만 행정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가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먼저 지난해 시행한 전라북도 건축문화자산 중에서 종교자산에 편입해 건축과 문화재계에 가치를 인식시키고, 관련 사료를 수집해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완주군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천주교 전주교구 호남교회사연구소는 지난 3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초남이성지 2차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각계 전문가 주제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에 나섰다.

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바우배기의 성역화 사업 등과 관련,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초남이성지와 바우배기를 종교 차원의 단순한 역사적 장소를 넘어 세계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조성하고, 문화재로 추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 성지를 단순히 천주교 성지가 아닌 세계적인 평화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부 '조선 후기 전라도 지역 순교의 역사적 의미'와 2부 '종교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국내 전문가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조광 전(前)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조선

후기 정치 · 사회적 변화와 천주교'라는 주제로 초남이성지 종교문화유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기초강연을 하고, 김수태 충남대 교수(윤지충 · 권상연 · 윤지현 복자의 삶, 신앙 그리고 순교)와 이석원 수원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천주교 박해시기 순교자 시신의 수습, 안장, 이장에 관한 자료 연구)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편 완주 초남이성지는 지난해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유해와 유물이 200여년 만에 발견돼 큰 관심을 끌었다. 신해박해(1791년) 때 순교한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복자의 유골과 신유박해(1801) 때 순교한 윤지현 프란치스코 복자 등 3인의 유해와 유물이 확인됐고, 유해는 초남이성지 교리당에 안치됐다.

/완주=이중복 기자

# 군산대 박물관,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선정

교육체험프로그램 '뮤점클라스' 기획... 2700만원 확보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박물관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전시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험프로그램 '뮤점클라스'를 기획하여 2,000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프로그램 기획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추가지원 혜택으로 최종 2,7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기획된 '뮤점클라스'는 내 손에 담은 유물(초등), 박물관에서 꿈Job고(중등), 군산 누비Go누리Go(가족), 온라인형 체험키트(문화소외지역) 등 모두 4개의 색선으로 구성되며 1,000명 내외의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 향문문화관.

정기문 박물관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뮤점 클라스는 군산 고유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박물관에서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지역구성원이 눈높이 맞게 참여하도록 하였고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무주산골영화제 서울 팝업스토어'

4월 9일까지 가이드 매거진 제공 · 굿즈샵 · 이벤트 등 진행

주의 푸른 자연 속에서 영화와 함께 여유로운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무주산골영화제(2022. 6.2.~6.6.)'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무주산골영화제 서울 팝업스토어'를 오픈, 오늘부터 영화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을 서울 성수동에 마련한다.



초여름 6월을 한껏 기다리게 만드는 낭만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영화제 홍보를 위한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10일간 서울숲길(성수동) 프로젝트센터 3호점에서 진행되는 '무주산골영화제 서울 팝업스토어'는, 올해 10주년을 준비 중인 영화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다양한 테마로 구성해 영화제를 기다리는 관객들과 아직 무주산골영화제를 참여해 보지 못한 예비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우선 '무주산골영화제 서울 팝업스토어'에서는 영화제가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가이드 매거진을 방문객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 매거진에는 올해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소개와 영화제 현장 관객들을 위한 깜짝 바우처, 그리고 무주를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다. 여기에 한정판으로 제작된 '무주산골영화제' 콜드브루 캔커피를 즐길 수 있는 미니 카페와 오직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만 구매 가능한 영화제 한정판 굿즈들을 판매하는 굿즈샵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역대 베스트 액터(박정민, 고아성, 안재홍)가 직접 제작한 셀프 트레일러는 물론 미공개 화보컷을 미디어로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과 올해 새로운 페스티벌 아이덴티티로 꾸며진 포토존이 마련되며, 매일 푸짐한 선물이 증정되는 현장 이벤트는 '무주산골영화제 서울 팝업스토어'를 찾은 관객들에게 오는 6월 3일 개막하는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에 대한 큰 기대감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산골영화제 서울 팝업스토어'의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샬렘-울림-어울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매년 성장하고 있는 '무주산골영화제',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목)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월)까지 총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제16대 남원문화원장에 김주완 원장 재선

남원문화원 제16대 원장으로 김주완 원장이 재선되었다.



정체성을 살리고 올바른 향토문화 창달과 애향정신 고취, 사회교육 모색 등 지역문화의 중심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주어진 4년 동안 문화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익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무대 행복 플러스' 공연

익산시는 수요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수요자 맞춤형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상의 힐링을 제공한다.

익산시립예술단은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2022 찾아가는 예술무대 행복 플러스'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을 위해 지난 2월 학교, 병원, 요양원, 군부대 등 문화소외지역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왕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13개 기관 20회 공연을 진행한다.

이 공연은 1기관 1회를 원칙으로 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작년부터 관객 분리를 위해 수요자의 선택으로 1기관 2회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는 물론 좌석 간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문화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의 전당 관계자는 "이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잠시나마 일상의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손씻기

마스크착용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